

남북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광복 67돌을 맞으며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동시법회를 봉행하고 우리들의 변함없는 통일의지를 담아 부처님전에 삼가 발원을 올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겨레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예수일곱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삼천리 강토는 둘로 갈라져 우리겨레는 오늘까지 분단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2000년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은 오랜 세월 겨레의 가슴에 서리고 맺힌 분단의 아픔을 가셔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주었으며 2007년 10.4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앞길을 환히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과 북 사이에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 남측정부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협정체결 시도로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 40여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었으며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까지 강탈하려는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협정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서는 일찍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와 화해, 화합, 평화와 평등에 대하여 가르치시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였던 우리 민족은 근 7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있으며 평화는 엄중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이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은 곧 화해
화합이고 자타불이이며 평화와 번영의 길입니다.

우리들은 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남과 북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되
기 위해 남북선언이행의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통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겹쌓인다 해도 우리 민족
끼리 힘을 합쳐 이 땅위에 기여이 통일된 조국, 발고여락의 이념이 현실로
꽃피나는 현세의 지상정토를 세우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가 서원하고 행하는 이 길에 무량한 자비광명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과 불심화합으로 행하는 불사 하나하나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선업이 되도록 광대무량한 가호와 가피를 내려 주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8.15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불기 2556(2012)년 8월 15일